

본사가 주최하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윤광)가 진행한 제5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7월 29일~8월 1일 2박3일간 충북 보은 법주사와 속리산 유스타운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소년소녀 가장 10여명을 포함, 200여 어린이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눈높이 참선 공부'·'찬불동요 배우기' 등의 불교 문화 체험과 물놀이·축구·피구·스포츠댄스 등의 생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알차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장



◇두 손 곁에 모은 연꽃합창. 한가지색 소원을 담았다.

마음공부...노래 춤도 신나게

"와! 춤발이다." 7월 29일 조계사를 출발하는 버스 안, 설레임에 온통 술렁거린다. 배웅 나온 부모님은 이미 인종에도 없다. 본격적인 일정은 시작도 안했는데, 설레는 마음은 도착지 속리산 법주사와 유스타운에 가있다. 오후 3시, 속리산 유스타운 대강당에서의 입재식. 불교 레크리에이션협회 윤광 스님의 인사말에 아이들의 몸은 근질근질 해진다.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언니·오빠말 잘 듣기 등등. '쇠귀에 경 읽기'다. 하지만, 이어지는 찬불동요와 율동따라하기 시간. 붓꽃처럼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율동시범이 끝나기 무섭게, 앉아있던 아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율동과 노래부르기 시간은 언제나 흥겹다. 끝없는 율동과 노래를 따라해 보지만, 언제나 '반박자'씩 느린 어린이들이 서서 마주보며 해맑게 웃는다. 조금씩 익어가는 몸짓. 어느덧 아이들의 입가에 가사가, 몸짓엔 율동이 녹아든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가마솥을 다시 살펴본다. 국보5호 쌍사자석등, 국보64호 법주사석연지 동등 이어지는 설명에 어느덧 진지하게 귀기울이는 어린이들. 계속 물어댄다. 스님은 비지땀을 흘리지만,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친다. 물놀이 시간. 여름캠프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어느새 갈아입은 삼각팬티 수영복. 부끄럽다고 난리들이다. 연신 티셔츠를 잡아 당겨 엉덩이 가려대기 바쁘다. 실내수영장이 쾅쾅 울린다. 결국 진행대장 이성훈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 아이들이 주춤한다. 그것도 잠시, '종일종일'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마지막 날인 8월 1일, 일찍 잠을 깬 아이들에게 '생활 스포츠' 활동이 펼쳐졌다. 첫 시간은 포크댄스 속스텝다. 손을 맞잡기도 어색한 듯 망설임이 들끓는 중. 노래와 춤의 어울림에 날렵하게 몸을 움직인다. 몇 동작 못 따라했다고 한 번 더 하자고 아우성이다.



◇혜용스님의 '눈높이 참선공부시간'. 아이들이 풍긋 귀를 세우고 듣고있다.



◇스님의 말씀하니 놓치지 않으려는 어린이. 무얼 적고 있을까.

또 하나, '참선'이라는 찬불동요. 두 손 두발 가지런히 연꽃모양 만들고/두 눈 살짝 꼬름 보며 작은 미소 지으면/꾸러기 맘 사라지고 보살

날 밤 새록새록새 마음 어 느새 부처님 닮아가요' 라는 노래말. 아이들의 화두가 된다. '아빠다리'를 한 아이들. 취하는 자세가 각양 각색이다. 야단법석이었던 강의실은 진지한 선방이 되고, 아이들의 마음은 부쩍 커진다.

30일 이른 아침, 한마음선원 혜용스님의 '눈높이 참선 공부' 시청각 기기와 재미있는 스님 말에 흥분 눈이 화 되진다. "여러분에게는 '한마음 주인공'이 들어 있어요. 이 마음은요, 여기든 학교든 집이든 항상 있는 거랍니다. 짜증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 나를 지혜롭게 이끌고 가세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잘 끌고 가' 라고요. 알겠죠?" 같은 날 오전 9시, 아이들은 법주사로 향했다. 40분 넘는 거리지만 멀리 보이는 부처님의 손길에 어느덧 금새 다다랐다. 황금 미륵대불 앞에서 법주사 성오스님의 사찰 설명을 들었다.

"옛날부터 법주사는 큰 절이었답니다. 저기 '월랑'이란 큰 숲 보이죠. 이 숲은요, 40가 밤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을 만큼 크답니다." "네? 뭐라고요!"

국보 쌍사자석등 설명 때 너도나도 질문공세 물놀이시간 수영장 삼삼오오 '종일종일'·법석

이제는 축구시간. 최근의 축구열기를 나타내듯 축구에 쏟는 관심이 남다르다. 기만기만 물어다보면 수비수는 없고, 공격수만 있다.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축구공이지만, 아이들의 축구심대는 끓어올랐다. "두 골이나 내가 막았는데, 2대 1로 졌어요.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해요." 진영9 서울 금천초2가 못내 아쉬워하며 선생님에게 말소리를 높인다. 3시간 남게 뛰어놀던 아이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키가 큰 소나무사이를 거쳐서서인지 바람이 시원하다. 놀이심에 흠뻑 빠졌던 아이들의 얼굴에 아기부처님의 해맑은 미소가 녹아들었다. 팔기만 하다. 2박3일,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환한 웃음꽃이 핀 아이들의 얼굴이 선재동자같다.

글=김철우 기자 w-gan@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nia.com



◇국보6호 법주사석연지 설명을 듣는 어린이들의 눈빛이 진지하다.



◇'우리편 이겨라' 재밌는 전래놀이시간.



◇맑게 웃고있는 민경이(오른쪽)와 수현이.

"우리 자매하기로 했어요"

소녀가장 기민경·정수현양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 초청 받고 왔어요. 설레는 마음에 참가한 캠프가 덥고 힘들었지만, 공기 좋은 산에서 며칠 밤을 자니깐 건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모르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음, 우리요, '자매'하기로 했어요. 국가에서 받는 한달지원금

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비로운 부처님이 제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쥘로 나요. 제 꿈은 가수고요. 수현이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할래요. 서울 흥일초5·서울 백산초5

"처음엔 서먹...친구 셋이나"

캠프 재롱둥이 박재동군

할머니가 현대불교신문을 보시고, 구미에서 서울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속스럽고 적응이 안됐는데 친구들과 친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친구를 3명이나 사귀었어요. 주수도 적어주고, 전화번호도 축구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월드컵 때, 아빠가 바빠 길거리 응원도 못나가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만 봤는데, 이번에 친구들과 축구를 직접 해보니 정말 기쁘요. 내년에는 초



등학교가 되는 동생하고 같이 오려고 해요. 아미 할머니가 또 보내주실거예요. 구미 장곡초1

3일안에 깨닫는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백담사(하복성 조현)와 보문사(강성경 정안현)에서는 이미 잘나(존외)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관념과 이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무념 무상과 심애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영가들의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천도 확언할 수 있는 능력
- 온갖 꿈의 시달림에서 해방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이 자유되는 힘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일상 깨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기 못해 방황할 때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수련 과정

本性 (3일)	참미음, 無心, 無分別智 업장소멸, 직의식 소멸
無碍法界 (3일)	不空,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이결(진도 眞度) 마음의 자유와 유식 원이는 대로 이루는 법칙 거듭남의 비결
無上覺	安息, 삶의 기쁨

TEL 033) 435-3166, 435-6166
FAX 033) 435-8166

춤바움禪林院 (구대광사)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증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별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0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평생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니코틴, 담 등 골저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장애, 산후전장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증경하옵는 스님, 오승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경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치 부담으로 미처 곁할 기회를 못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 없이 惠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